



# 다솜 <사랑> 이야기

2006년 6월 3일 제10호

펴낸이 : 교장 최미영  
엮은이 : 교사 박은경

1494 California Circle, Milpitas, CA 95035 TEL:(408) 934-3600 FAX:(408) 934-1092 Website:www.dasomks.org

<p>가</p> <p>가 ,</p> <p>가 ,</p> <p>가</p> <p>가</p> <p>가</p> <p>가</p> <p>가</p> <p>가</p> <p>2004</p> <p>3 12</p> <p>100</p> <p>, , SATII , ,</p>	<p>2</p> <p>2</p> <p>가</p> <p>,</p> <p>가</p> <p>.</p> <p>가</p> <p>9</p> <p>가</p> <p>가</p> <p>2006 6 3</p> <p>◆</p> <p>6/10 : ( )</p> <p>7/20~22 : ( , 8 가)</p> <p>9/9 : 가</p> <p>9/23 : ( )</p> <p>◇ 2006 가</p> <p>6</p>
--	--



( )

가

.  
...15  
... ,  
... ,

가

' (Renovation of the Heart)

. “  
가 .  
가  
가  
가

가 . (

4:14) ” 가  
가  
...가 ...  
가  
가  
가

,가  
가 가

. 가  
가  
가  
.( 1:6)



( )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1, 2 110 ,

84

₩

❖ [redacted] : , , ,

❖ [redacted] : ,

❖ [redacted] 1 : , , , , ,

[redacted] : , , , ,

❖ [redacted] 1 : ,

[redacted] : ,

❖ [redacted] 1 : , ,

[redacted] : ,

❖ [redacted] : ,

[redacted] : ,

❖ [redacted] : ,

☀ [redacted] : , , ,

☀ [redacted] ,



13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2006 5 13 8

₩ : Summit Point

₩ 가

, , , , ,  
Kevin Hyung, , , , ,  
Tae,

, , , , ,  
, , , , ,  
, , , , ,  
, Alvin Kim

₩

, , , , ,  
, /  
, / , , ,  
, / , , ,  
,



4 : ( ), ( / )

5 : ( ), ( / / )  
( / )

## 개교2주년 기념식

글 : 정은경 선생님

지난 3월 18일 우리 학교에서는 개교 2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리빙워드 한인침례교회 김성국 담임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된 개교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교장 선생님 말씀, 샌프란시스코 한국 교육원 노희방 원장님의 격려사로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2년간의 사진을 모아 만든 다솜 역사 탐방 영화를 보았으며 곧이어 각 반의 솜씨 자랑이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학생들은 2년 전 또는 1년 전의 본인의 모습이 나올 때마다 즐거워했으며, 각 반의 솜씨 자랑을 할 때는 그동안 쌓아 두었던 자랑들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저희 학교 귀염둥이들의 집단인 "병아리반"에서는 "태극기가 바람에~"가 힘차게 흘러 나왔으며, 옥수수반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씨앗에도 물을 주어야 싹이 나고 꽃이 핀다는 사랑스런 내용의 "씨앗"이란 노래를 율동과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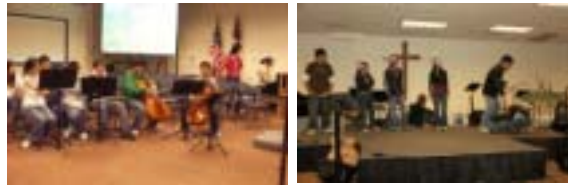
반주 없이 세 파트로 학생들이 나뉘어져 차례차례 앞으로 나와 "주먹 쥐고~"를 부르는데, 모든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개나리반의 노래와 율동이 있었으며, 정렬된 복장과 태도로 "종이접기"를 열심히 부른 봉송아반의 힘찬 무대도 있었습니다.



해바라기반으로 이어지면서 각자 본인의 소개와 취미를 포박포박 말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중급반 형님들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났으며, 세 편의 연극 대사를 지난겨울 방학 때부터 외우느라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민들레반의 연극도 있었습니다.



옛날 어릴 때 살았던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고향의 봄"은 진달래반 형님들의 수준 높은 연주로 우리 학생들과 손님들에게 아름다운 감흥을 불러 일으켰으며, 어린 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우리 학교 최고 높은 반인 무궁화반은 스스로 기획하고 준비하는 형님들의 기량을 보여주었으며, 귀여운 노래를 곁들이는 연극과 멋진 춤은 그 자리에 모이신 여러 손님들과 학생들로 부터 많은 환호와 박수를 받았답니다.



연습할 때는 잘 했는데 막상 발표할 때는 부끄러워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학생, 세 살짜리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본인도 분발해야겠다는 형님반 학생, 본인은 잘하지 못했지만 다른 학생들이 잘해 줘서 기뻐했다는 학생..... 그러나 개교 기념식을 위해 열심히 연습해서 손님들에게 보여 준다는 것이 아주 자랑스러웠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 모두 다같이 협동하고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는 학생들의 글에서 저희 다솜의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다솜 한국학교에 끊임없는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제29차 북가주 한국학교협의회 교사 연수회

글 : 원은경 선생님

지난 4월 8일, 북가주 한국학교 협의회 소속 한국학교 교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연수회는 뉴브런스윅 신학교 기독교 윤리학과 이학준 교수님의 "주류 사회를 향한 2세 교육"이라는 제목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리빙워드 한인 침례교회의 박지원 부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정상기

총영사님의 “우리 한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에 있어 그 속도보다는 그 방향성과 내용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격려사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이 행사에 참석한 모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명과 도전을 주었던 이학준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민의 60% 이상이 교육이민이라고 할 정도로 한인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정은 매우 높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얼마나 성공적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의문이 많다.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재미 한인으로 키울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는 자녀 교육에서 이민1세 부모와 자녀의 준거틀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1세 부모는 주로 집단적으로 동질성을 중요시하며 인간관계가 수직적이고 순종과 권위예의 복종을 미덕으로 아는 동양 문화가 그 준거틀의 배경인데 비해 2세들은 개인적이며 개인의 창의성을 중시하고 인간관계가 수평적이며 상호함의로 이해되는 서양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자녀들은 미국 사회 속에서 자신, 가정, 학교, 그리고 직장이라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데 학교와 직장 사이에 존재해야 하는 한인 커뮤니티가 없는 상태에서 자라나므로 자신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그럼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먼저 자녀 교육의 목적을 부모의 성취감 만족이나 이상 실현에 둘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자기실현에 두어야 한다. 둘째로는 자녀를 알고 발견해야 한다. 영어의 education은 자녀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는 뜻이 담겨 있다. 자녀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성취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것을 발견하는 일은 인내를 요하며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 정말로 내 자녀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인지 계속 찾아내고 잘하는 것으로 좁혀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그 일을 하고 싶도록 동기 유발을 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또 부모가 자녀를 믿고 신뢰해 줄 때 자녀도 스스로를 신뢰하게 되며 자신의 일을 신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대학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대학 이후의 일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 후에 좋은 회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백인이나 다른 인종이 많은 사회에서 성공하기보다는 한인 사회로 돌아오는 2세가 많은 실정인데 이는 백인이 우월한 미국 사회에서의 인종차별을 견디어 낼 수 있는 정신력을 키우는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인종차별이 있음을 인식시키고 이를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의지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또한 부모의 어려움 혹은 성공담을 숨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솔직하게 들려줌으로써 부모가 어떻게 이민1세로서 살아왔는지를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우리 이민 사회는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은 있으나 정치적 공동체가 부재인 상태이다.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뭉치고 끌어 주고 엮어 주어야 한다. 즉 네트워킹이 매우 중요하다. 백인 주류의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다 해도 성공한 한인 선배가 이를 이해해 주고 자신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2세들이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서로 엮어진 한인 사회가 모두 함께 우리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것이다. 또한 자식이 성공하면 그냥 가족의 성공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한인 사회에 나가서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학교의 교육의 목표가 단지 한글을 가르치는 데에만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교육에 있어서 고유 가치와 보편 가치를 혼동하지 않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고유 가치는 현대 사회와 같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자주 바뀌게 된다. 심지어 고유 가치의 본국인 한국에서조차 그에 대하여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제 우리 교사나 학부모님들은 우리의 고유 가치에서 보편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어 우리의 2세들이 그 가치를 감사할 줄 알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다.

## International Fun Festival

글 : 백지현 선생님

지난 4월 22일, Fremont에 있는 Warm Springs Church에서 있었던 International Fun Festival에 다솜 한국학교가 한국을 소개하기 위해 참가했었습니다. 각 나라 별로 부스가 설치되어, 준비해 온 각 나라의 문화와 음식 등을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해 간 윷놀이, 팽이, 공기, 딱지, 한복색칠하기 등의 게임과 먹거리용 약과와 강정을 전시해 놓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았습니다. 윷놀이에도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기도 하였고, 팽이를 돌리는 방법을 궁금해 하기도 하였고, 한국어로 자신의 이름을 써 달라는 요청도 많았으며 특히 아이들은 한복 색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또한, 약과와 강정도 다들 맛있어 하는 듯 보였습니다. 감히 이 행사 중 최고였다고 할 수 있는 다솜 한국학교 무용반 박주희 선생님의 지도로 학생들이 선보인 "봄의 소리"라는 주제의 한국 무용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으며, 지켜보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벅차고 뿌듯하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남의 나라를 알고, 우리나라를 알리기에는 길지 않은 2시간이었지만,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던 보람된 행사였습니다.



최윤아, 홍희연, 유혜리, 서슬기

## 북가주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

글 : 박희정 선생님

예년과 달리 훈훈한 봄바람이 살랑대던 5월 13일, 트레저 아일랜드에서 제13회 북가주 학생 백일장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속에 참가한 학생과 학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봄기운을 만끽한 하루였습니다.

백일장 행사는 제 6회 그림그리기 대회와 제 5회 학부모 백일장 대회와 함께 열려 풍성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백일장 대회에는 총 160여명, 그림그리기 대회에는 480여명, 그리고 학부모대회에는 12명이 참가했습니다. 우리 다솜에서는 총 44명의 학생이 참가해 평소 같고 닳은 한국어 실력과 멋진 그림 솜씨를 뽐내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백일장 대회가 '초등부' '중등부'로 나뉘어 겨서 작년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고, 중등부 학생들이 많이 참가해 더욱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잡았습니다. 초등부에 비해 중등부 백일장 참가자가 약 2배나 되었다는 것은, 한국어를 사랑하는 중등부 학생이 그만큼 더 많다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행사는 개회식과 등록에 이어 10시에 본격적인 대회 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백일장 대회의 주제는 '꿈, 자전거, 안경, 그림자'였습니다. 각자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 멋진 한글 솜씨를 자랑했습니다. 그림그리기 대회의 주제는 초등부의 경우 '여름, 설날'의 두 가지였습니다. 중등부에서는 '평화, 희망'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주제로 창의성과 실력을 겨루었습니다. 12시까지 계속된 대회는 곧 이어 점심식사, 게임에 이어 시상상을 끝으로 오후 4시 즈음 막을 내렸습니다. 점심식사 다음에 벌어진 게임 시간에는 각 학교 대항 줄다리기가 인기를 모았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총 23개 학교 중, 줄다리기 대회에 참가한 학교는 총 6개 학교. 그 중 우리 다솜은 세계선교 학교와 붙었으나 안타깝게도 석패하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줄다리기의 으뜸상을 차지한 임마누엘 한국학교는 참가자 전원이 '코팅된 면장갑'으로 인해 '유비무환'의 자세를 선보였습니다. 우리도 내년에는 꼭 면장갑을 준비해 으뜸상을 먹으리라 다짐해보았습니다. 어린이들의 기대를 한껏 모았던 보물찾기 시간도 끝나고, 드디어 시상식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상식의 흥을 돋구어준 '나의 살던 고향'의 노래와 게임 덕분에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시상식을 기다렸습니다.

새싹문학회 박은주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까다롭고도 공정한 심사기준 발표가 뒤따랐습니다. 그림그리기 대회에 참가한 약 500명의 경쟁자를 물리친 입상자 중 5명의 다솜 식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13회 한글 백일장 대회 수상자 중 다솜 식구는 모두 5명이었습니다. 다솜의 최고반인 무궁화반에서 참가한 3명은 모두 수상을 해서 다솜 식구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식구들이 참가해 더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 다짐한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해간 장갑과 파카가 무색했던 포근한 날씨 속에 진행된 행사에서 모두들 즐겁고 유쾌한 하루를 보내며 한글 사랑의 마음을 다졌습니다.



## 백일장 대회 수상 작품

글 : 이형진(진달래반)

어느 날에 열 두 살인 남자 아이가 침대에서 잠을 푹 자고 일어날 때, 그림자가 없어진 것을 깨달았어요. 침대 밑에도 보고, 책상 서랍도 찾고, 책꽂이에도 살살이 열어 보고 다 찾는데 그림자는 안 보였어요. '이상하다...' 하고 혼자 생각하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내 그림자 어디 있어요?" "뭐 너 그림자를 잃어버렸어? 당장 빨리 찾아!" 라고 성빈이의 어머니가 소리를 뽕뽕 질렀어요. "어디 있을까?" 라고 성빈이는 고민했어요. 성빈이는 학교에 그림자 없이 다녔어요. "야! 마이클, 네 그림자 봤어?" 성빈이가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너는 어떻게 그림자를 잃어버리냐? 너는 정신이 있어, 없어?" "입을 닫고 빨리 나를 도와줘." "도와주면 뭐를 줄 거야?" "어, 천원 줄게." "약속 꼭 지켜야 돼." 로 말이 끝났어요. 같이 영어 학원에 학교 끝나고 걸어갔어요. 선생님이 뭘 찾냐고 물어봤는데 성빈이는 그림자를 찾느라고 못 들었어요. "너 대답 안 해? 손들고 별 서." 한 시간 뒤에 망신받고 손을 내리라고 선생님이 했어요. 마이클이랑 떠나고 아무리 찾았는데 가는 데마다 없었어요.

저녁이 되고 마이클은 집에 갔어요. 성빈이는 집에서 더 찾아봤어요. "엄마! 아직 못 찾았어요." "침대를 좀 봐라" "거기는 왜 있어요?" "빨리 찾아봐!" 침대에 봤는데 그림자가 있었어요! "엄마! 침대에 있었어요. 잘 때 떨어진 거예요." 저녁이 된장찌개라 맛있게 먹고 이 피곤한 날을 잊고 잤어요.



## 종강식 발표회 준비 스케치

글 : 진달래반 학생들

다가오는 6월 3일은 한국학교가 종강식을 하며 3개월 정도의 긴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1년을 마무리하며 각 반에서 준비한 솜씨를 종강식에서 선보일 예정인데요. 지난 5월 20일 진달래반 학생들이 직접 각 반을 돌아다니며 준비하는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제일 먼저 병아리반을 취재한 손승희와 김현지 기자는 "우리가 병아리반에 갔을 때는 병아리들이 Play room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참 사이좋게 잘 놀고 있었습니다. 병아리반에서는 '자음ㄱ~ㅎ' 노래를 연습했는데 어린이들이 너무 씩씩하고 예쁘게 잘 불렀습니다. 어느 아이들은 노래를 하며 손을 잡았습니다. 모두의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귀여웠습니다. 끝날 때에 어느 아이가 저에게 와서 포옹을 했는데 저의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옥수수반을 취재한 조현희와 이수정 기자는 "옥수수반에서는 '여우야 여우야'를 노래로 부를 예정입니다. 모두들 너무 귀엽게 잘 불렀어요."라는 짧은 소감문을 적었지만 가장 오랜 시간 머무르며 동생들과 함께 어우러진 시간이었습니다.

개나리반을 취재한 이형진 기자는 "개나리반에서는 말잇기 놀이를 하는 것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개나리는 노란 색 -> 노란 것은 ... 아이들이 형용사를 발표하고 선생님이 적어가면서 함께 노래를 합니다. 무서운 것을 이야기하는데 의견이 다릅니다. 누구에게는 무서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안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협동을 느꼈습니다."라고 전합니다.

봉숭아반을 취재한 강인모 기자는 "봉숭아반은 여자 학생이 참 많습니다. 모두 선생님 말씀을 아주 잘 들어요. 봉숭아반에서는 '빈대떡과 천사'라는 이야기를 학생들이 돌아가며 읽을 예정입니다. 요리를 잘하는 천사 이야기인데 연습 때는 목소리가 좀 작아서 잘 안 들렸지만 발표회 때에는 큰 소리로 잘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p>해바라기반을 취재한 이태형 기자는 “해바라기반은 쉬는 시간이어서 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아이들이 피곤해 보여요. 조그만 방에서 아이들이 한 줄로 앉아서 열심히 불렀어요.”라고 전합니다.</p> <p>민들레반을 취재한 김민수 기자는 “민들레반에서는 한국의 역사이야기를 학생들이 외워서 말할 예정입니다. 고조선, 백제, 고구려, 신라, 발해, 조선, 일제시대, 대한민국을 차례로 이야기하는데 민지가 잘했어요.(참고로 민지는 민수의 동생이랍니다.) 재미있었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미국 말만 하는 것이 좀 아쉬웠어요.”라고 기록했고, 함께 구경하던 다른 기자들도 진짜 잘 외운다고 칭찬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에 학생들이 직접 만든 프랭카드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p> <p>무궁화반을 취재한 이호윤 외 기자 모두는 “무궁화반이 가장 기대가 되는데 그 이유는 지난 개교기념식 때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무궁화반에서는 ‘시집가는 딸’이라는 이야기를 바꾸어서 연극으로 보여줄 예정이랍니다. 딸을 강한 사람에게 시집보내기 위해 햇님-&gt;구름-&gt;바람-&gt;벽-&gt;이웃집 총각취로 이어지는 원래의 이야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비밀이라고 말을 해주지 않아서 더욱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살짝 재미있는 정보를 주었는데 멋진 형(오빠)이 예쁜 딸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무궁화반은 학생들이 직접 계획하고 준비한 행사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됩니다.” 라고 함께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p> <div data-bbox="318 1444 630 1680" data-label="Image"> </div> <p>그리고 진달래반에서는 ‘어머니 은혜’와 ‘하늘나라 동화’를 미니 오케스트라로 연주할 예정입니다.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트럼펫, 비올라, 플루트 등의 악기로 조화를 이루며 특별히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p>	<h2 style="text-align: center;">부모님이 아프실 때</h2> <p style="text-align: right;"><b>민들레반</b></p> <p>전호정 - 부모님이 아프면 호정이 마음도 아픕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아프시면 약도 가져다 드리고 물도 떠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부름도 잘하겠습니다.</p> <p>조현성 - 부모님이 아프실 때 마음이 아팠어요. 내 가족이니깐요. 조용하게 있었고, 신경 쓰시지 않게 해드렸어요.</p> <p>김민지 - 부모님, 가족이 아프면 되게 속상합니다. 우리 가족이 아플 때, 너무 힘들게 보여서 속상해요. 나는 가족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줘요.</p> <p>송수빈 - Gasp! Choke choke Wheeze! Cough cough hack.. 우리 부모님이 아프시면 나는 이런 소리 낼 거예요. 부모님이 아프시면 내 마음이 너무 슬퍼요. 왜냐하면 나는 우리 부모님을 많이 많이 사랑해요.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부모님 심부름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빨리 나올 거예요.</p> <p>정샤론 - 작년 여름에 엄마가 목 디스크 때문에 많이 아팠어요. 엄마가 아팠을 때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심부름을 많이 해주었어요.</p> <h2 style="text-align: center;">미니 앙케이트 (만약에)</h2> <p style="text-align: right;"><b>진달래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약에 라임머신이 있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히틀러를 만나서 야단칠 거예요.</li> <li>- 과거로 가서 후회하는 일을 바꿀 거예요.</li> <li>- 내가 어렸을 때로 돌아갈 거예요.</li> <li>- 엄마 아빠의 어렸을 때 모습을 보고 싶어요.</li> <li>- 미래에서 좋은 물건을 가지고 놀 거예요.</li> </ul> </li> <li>* 만약에 말이 없어진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춤을 출 거예요.</li> <li>- 누나가 소리를 질러도 조용해서 좋아요.</li> <li>- 한글 숙제를 안 해서 좋아요.</li> </ul> </li> <li>* 만약에 라면이 없어진다면 슬퍼질 거예요.</li> <li>* 만약에 집이 없다면 백화점에서 살 거예요.</li> <li>* 만약에 남자들이 없으면 행복하겠다.</li> <li>* 만약에 내가 투명인간이 된다면 비밀경찰이 될 거야.</li> <li>* 만약에 어른들이 없다면 세상은 힘이 들겠다.</li> </ul>